



## 주요 소식

-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 행복도시 '공원 속 도시로'
- 행복청 차장 기고
- 행복청, 인프라 외교 뛰어든다



##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소속 대학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캠퍼스를 누빉니다.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지난 2일, 행복도시에 문을 연 '세종공동캠퍼스'의 이야기입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기존의 대학과 캠퍼스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입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입니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상징인 정부청사를 넘어서서 도시민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콘텐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대표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행정기능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족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의 중심인 대학교 설치를 통해 청년층 인구를 유입시키고 도시의 전략산업을 위한 인재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대학 신설이나 이전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약 2,8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약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수만 총 3천명에 이릅니다.

### 대학 여건에 따라 맞춤형 두 트랙 '임대형', '분양형'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총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된 상태입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됩니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약 1천 명입니다.

분양형의 경우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합니다. 정원 약 2천 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 캠퍼스 주요 시설 둘러보기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 및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 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습니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속속 들어섭니다.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기숙사는 2025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의 요람 - 세종공동캠퍼스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위치한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됩니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입니다. 한 가운데 세종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에 밀집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400여 첨단기업·연구소에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며 '교육-연구-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대학교의 인가 과정을 담당한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 이라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행복도시, 도심 속 공원 넘어 '공원 속 도시'로

- 도시 절반 이상이 녹지와 친수공간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공원도시'
- 1인당 공원면적 전국 1위, '공세권' 만족도도 1위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올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세종시가 1위로 꼽혔습니다. 거주자의 무려 68.8%가 자연환경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며 2위 제주 62.6%, 3위 경남 59.1%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종시 주민들이 생활반경 내 크고 작은 공원을 통해 자연을 쉽게 접하고 교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세종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57.6㎡로, 전국 평균 11.3㎡의 약 5배, 서울 4.7㎡와는 1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의 역할이 컸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도시는 구상 단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실제 세종중앙공원·호수공원과 같은 랜드마크는 물론,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근린공원까지 총 3,840만㎡, 전체면적의 약 52.6%가 공원과 녹지, 친수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주도로 시작한 '공무원'의 도시에서 나아가 살기 좋은 '공원'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도시 중앙부에 드넓은 공원과 미래를 품은 곳

행복도시는 고리 모양의 대중교통 중심축을 따라 도시기능과 생활권을 분산 배치한 구조로, 중앙을 비워 드넓은 대자연 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 중심부로 다가가면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세종중앙공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초 도심형 수목원으로 사계절 전시온실과 한국전통정원을 재현한 국립세종수목원이 자리하였습니다. 이들 중앙녹지공간 뒤로 원수산과 전월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총 20개 코스, 208km에 달하는 친환경 둘레길이 각 생활권의 공원과 광장, 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비단 물결의 금강과 미호강이 시내를 관통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 행복도시 공원 활용법 1탄... 직장인들의 '바쁜 일상 속 힐링을 찾아'

행복도시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잠시 공원을 거닐며 '망중한'을 즐기는 직장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치열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연과 만나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과 학교, 회사 어디에서든 걸어들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공원이 시내 곳곳에 조성되어 있고, 즐기는 방법도 다채롭습니다.

크기 약 138만㎡에 달하는 세종중앙공원은 12종의 스포츠시설과 축제 및 행사를 위한 도시축제마당, 가족여가·가족예술과 같은 테마숲, 12절기 주제의 어울림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자연 속 건강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 도심을 가로지르는 방축천 둔치에 조성된 수변공원도 인근 직장인들의 가벼운 산책코스로 유명합니다. 방축천 10교부터 16교까지 약 1km 사이 수변식물 테마공원, 세종광장, 자연생태학습 등 5가지 테마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근길 야경 명소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금강 북측 중앙녹지공간과 남측 3생활권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 '이응다리'는 세종 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길이 1,446m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몰 후 이곳 전망대는 LED 조명에 반짝이는 도시 야경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또 나성동 중심상가의 도시상징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내 최대 4면 미디어큐브는 행복도시의 밤을 한층 빛나게 해줍니다.







### 행복도시 공원 활용법 2탄... 가족과 함께 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은 행복도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수심 3m의 인공호수에는 습지섬, 물꽃섬, 수상무대섬 등 5개 테마섬이 떠 있고, 소풍숲과 야생초화원, 수변전통정원을 비롯해 소나무길, 이팝나무길 등으로 꾸며진 수변 공간에는 언제나 가족 단위 관람객이 북적입니다.

한편, 집 근처에서 부담 없이 아이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근린 공원도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정동 '품애플공원'은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과 같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터와 여름철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바닷분수도 설치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 '모두의 놀이터'란 별칭으로 유명한 고운동 '고운뜰공원'은 아이를 위한 거대 UFO 미끄럼틀, 모래판과 정글짐, 하계 물놀이 시설 등은 물론, '행복정원'이란 이름의 텃밭과 탁 트인 도시 전경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전망대 등 어른을 위한 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어 밤낮으로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 행복도시 공원 활용법 3탄... '자연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행복도시 평균 연령은 36.0세, 전국 45.1세보다 훨씬 젊습니다. 출산율과 다자녀 비율도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에 아이가 자연을 체험하고 놀이할 수 있는 유아 시설이 특히 많은 이유입니다.

원수산 누리길에 위치한 파랑새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전문 체험 공간입니다. 흙놀이장, 목공놀이장, 인디언 집, 도토리 형상의 놀이터, 습지원, 탐조대 등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물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숲속교실과 낙엽놀이대가 설치된 전월산 무궁화유아숲체험원, 통나무 모험대와 나무 블록쌓기 등 천연 놀이터로 유명한 괴화산 큰마루 유아숲체험원 등이 '숲을 교과서로, 놀이를 배움으로'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복도시에는 어린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만든 놀이터도 있습니다. 바로 보람동에 위치한 땀범벅놀이터입니다. 축구장 1개 크기인 7,400㎡ 규모에 둔덕놀이원, 로프놀이원, 짚라인 등 독특하고 다채로운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작과정에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상상력과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한 공간인 만큼, 이용자인 어린이나 부모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첫걸음 '공원 속 도시' 완성

행복청은 2030년까지 공원 총 266개소를 계획한 가운데 현재 194개소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사는 동네가 어디든 집 근처에 반드시 공원이 있는 '공세권'을 도시 전체에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도시의 공원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라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풍부한 녹지를 활용해 세계 최고의 '공원 속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일석삼조 + $\alpha$ , 대중교통



강주엽 차장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은 저렴함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버스, 지하철 등 운임이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및 사회 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클라우즈소싱 데이터 플랫폼 ‘넴베오’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을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1회 이용할 때 대략 한국

은 1.09달러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1.51달러, 프랑스 2달러, 미국 2.5달러, 영국 2.93달러, 독일 3.34달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올해 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대중교통은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 외에도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지는 ‘시성비’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목적지까지 정시에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하철은 물론, 정체가 거의 없는 버스전용차로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덕분에입니다. 실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와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해보면, 승용차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통과할 때 소요 시간은 보통 20~30분,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초(分秒)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쩌면 돈보다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자원의 낭비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변화 대응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1km를 이동할 때 승용차가 뿜어내는 탄소는 210g인데 반해, 버스의 경우 27.7g 정도입니다.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일반버스 1대당 약 50인에서 56인까지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에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험적으로 시행한 ‘9유로 티켓’ 이벤트입니다. 9유로만 지불하면 국내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이 서비스는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률을 무려 25%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은 180만 톤 감소했고

대기오염은 6% 줄었습니다.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중교통은 근래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과 결합되어 똑똑함까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자율주행 버스,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이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문화·복지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도 진화하는 중입니다.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는 도시구상 단계부터 차량 통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우리나라 대표 대중교통 친화도시입니다. 도넛모양의 환상형 대중교통 중심축을 따라 도시기능과 생활권이 배치되어 BRT를 통해 도심 어디든지 20분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권 중심지와 거주지는 자전거나 도보, 공유 모빌리티 등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행복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BRT는 전용차로 및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립니다. 나아가 스크린도어, 냉·온열의자, 초정밀 버스위치 안내, 무료 WiFi 등이 설치된 첨단정류장과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등 고급화된 서비스로 2022년 미국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으로부터 국내서 가장 높은 Silver등급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연간 이용객이 천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 월 2만원 정액권을 끊으면 최대 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의 ‘이음패스’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전~청주~공주를 아우르는 ‘행복도시권 광역 통합환승 할인’도 금년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물가·고유가 시대 ‘K-패스’와 함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도시는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대중교통체계를 구축·발전시켜 가성비와 시성비는 물론,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글로벌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 세종 공동캠퍼스, 공유·융합·미래의 새 장을 열다

- 국내 최초 대학모델인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 개최
- 시설 공유, 지식 융합 및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 등 교육개혁에 앞장
-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성공스토리 모델 구축



행복청은 9월 25일(수) 오후2시 세종 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세종 공동캠퍼스 학생, 김종민 국회의원, 입주대학(7개) 총장 등 관계자, 한석수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이한준 LH 사장, 세종시의회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성공적 개교를 축하하며 캠퍼스 내부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수를 하였습니다. 이어 시작된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 선포식'은 이한준 LH 사장의 건립경과 보고, 김형렬 행복청장의 세종 공동캠퍼스 비전 선포,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세종 공동 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표현한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로서, 임대형(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과 분양형(충남대, 공주대, 고려대 세종캠퍼스)으로 나누어 총 7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종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기념하는 이 날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 총리는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공유·융합교육 실현 등 설립 취지와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행복도시 세종이 지방 시대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며, "세종 공동캠퍼스가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공유·융합·미래'라는 키워드로 "지식과 자원의 공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요람"이라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세종 공동 캠퍼스는 청년인구가 행복도시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교육과 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도시에 젊은 활력과 문화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세종 공동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행복청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청, '25년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

- '25년 예산 정부안 2,303억 원 편성
- 문화, 자족기능 확충 위해 박물관단지·공동캠퍼스 증액, 대외유치 신규 반영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 의사당 등 반영

행복청은 2025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으로 2024년 1,363억원 대비 940억 원(69.0%) 증가한 2,3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립박물관단지 건립(579억원) 및 지난해 12월 개관한 어린이박물관 운영(109억 원), 올해 9월에 개교한 공동캠퍼스의 운영 지원(13억 원) 예산을 증액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외유치협력기금지원(2억 원)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완공 예정인 국가재난대응시설(58억 원),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300억 원), 평생교육원(113억 원)의 완료 소요를 포함,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도로 등 진행중인 사업 예산(877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의 공공·기반시설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45억 원), 국회세종 의사당 건립(350억 원) 예산 및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예산(99억 원) 등도 반영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5년 예산안에 도시 활성화 및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하였으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행복청, 건설현장 중심에서 반부패를 외치다!

- '찾아가는 건설현장 반부패 캠페인' 실시
- 행복도시 건설관계자와 부패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다짐

행복청은 9월 12일(목)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 민관 합동으로「찾아가는 건설현장 반부패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이날 캠페인에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롯데건설 등 현장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부패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관계자 스스로가 청렴과 안전을 마음속 깊이 새겨, 재해 없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청탁금지, 공익신고 등 청렴 규정이 정리된 청렴

리플릿을 배포하고 청렴 메시지를 전파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행복도시 건설관계자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부패 없는 행복도시, 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5월에도 건설현장 관계자 80여 명과 함께 “부패 ZERO! 청렴 UP!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여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내 반부패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행복청, 인프라 외교 뛰어든다

### • 행복청장, 2개국 인프라 차관 양자면담, 필리핀과 양해각서 체결

김형렬 행복청장은 9월 11일(수)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하고, 한-아프리카 특별 세션에서 환영사를 통해 아프리카 주요국 장관들을 만났습니다.

9월 11일(수) 김형렬 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 협회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참여는 행복청이 그 간 해오던 해외 정부와의 수도이전 협력을 넘어 본격적인 인프라 협력 외교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우선 오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주택부 사무차관을 면담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2단계 사업에 우리 기업이 본격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알리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수도 사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진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장과의 면담에서는 과거 미군기지를 전환해 뉴클락시티로 개발 중인 필리핀측에 행복도시 조성 경험 전수를 약속하고, 도시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요국의 인프라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아프리카 특별 세션에서 환영사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가 주요 인프라 협력국에 파견한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주재국 정책을 공유받고, 우리 기업의 도시 개발분야 해외진출 강화방안, 행복도시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주요 인프라 협력국의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간 수도 이전에 한정되었던 협력 범위를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여 앞으로 협력국과 우리 기업 모두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인도, 도시문제 해법 행복도시에서 찾다

### • 인도 재무부 국장 일행, 스마트시티 건설 협력 방안 논의

행복청은 9월 4일 인도 재무부 국장 일행이 행복 도시를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측은 스마트시티 건설 분야 해외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행복청 관계자에게 행복 도시 건설현황을 브리핑받고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한 양국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과밀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안드라 프라 데쉬주(州)의 새로운 주도인 아마라바티를 건설 중으로, 도시 내 친환경 교통시설, 최첨단 비즈니스 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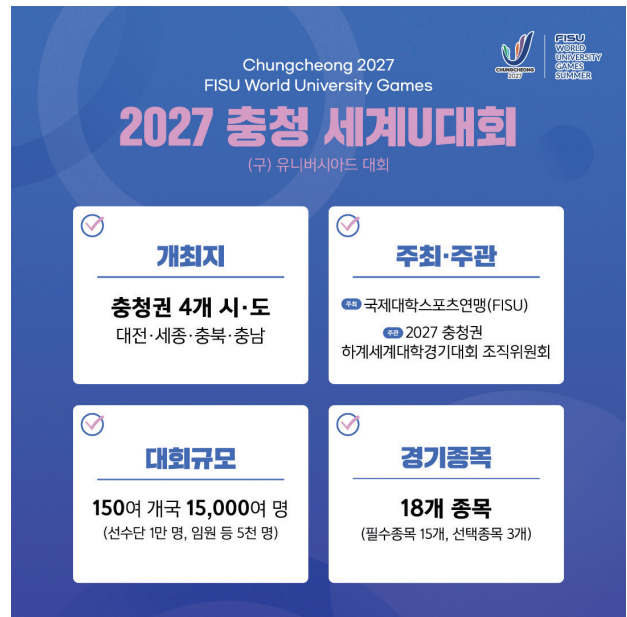
아마라바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 중인 솔로몬 아로키아라쉬 재무부 정책계획국장은 "한국의 행복도시 사례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하여 방문했으며, 향후 행복

청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도의 스마트시티 조성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청은 해외 도시건설 관계자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행복이와 한글교시(9교시)

알쏭  
달쏭우리말  
바르게 쓰기

사자성어 배워가기

백	절	불	굴
(百)	(折)	(不)	(屈)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

1. '바사지다'와 '바서지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선물로 받은 접시가 산산이 바사졌다. (X)  
- 선물로 받은 접시가 산산이 바서졌다. (O)
2. '닝큼'과 '닝큼'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부름에 닝큼 일어났다. (O)  
- 부름에 닝큼 일어났다. (X)

## 속 제 코너

알듯말듯 우리 속담 알아보기

- ① 조막손이 [?] [?] 도둑질한다.
- ② 비는 데는 [?] [?] 도 녹는다.

~~~~~

\* 8교시 속제 코너 정답

1번 : 원수, 은혜  
2번 : 달걀

## 사진으로 보는 행복청,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행복청, 직장 활력의 원동력은 스테르드스



초성인트

|   |   |   |   |   |
|---|---|---|---|---|
| 스 | 테 | 르 | 드 | 스 |
|---|---|---|---|---|

숙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다 작성해서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mailto: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구.유니버시아드 대회

**2027 08.01-08.12**

**개최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주최·주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규모** 150개국 15,000여명

**경기종목**  
 필수종목 18개 양궁, 기계체조, 육상, 배드민턴,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강릉,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수구  
 선택종목 6개 비치발리볼, 골프, 조정

**K-Link Festival** VISIT KOREA YEAR 2023-2024

**2024. 10. 05 (토) 인스파이어 아레나**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찾아라! 올여름 최고의 센스는?**

**에너지센스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

온도주의 ENERGY SENSE CAMPAIGN

**'25년 행복청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 중점 편성**

**Q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

|                             |                            |                          |
|-----------------------------|----------------------------|--------------------------|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br><b>579</b> 억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br><b>109</b> 억원 | 공공캠퍼스 운영<br><b>13</b> 억원 |
|-----------------------------|----------------------------|--------------------------|

**Q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                          |
|---------------------------|--------------------------|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b>45</b> 억원 |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b>350</b> 억원 |
|---------------------------|--------------------------|

**Q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                          |                               |
|---------------------------------------|--------------------------|-------------------------------|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b>413</b> 억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b>58</b> 억원 |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b>877</b> 억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